

2002 월드컵 주역 박지성, 한국 축구 발전에 '온 힘'

박지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 3개 대회 연속 출전에 연속 골을 기록한 한국 축구의 신화적인 선수 중 한 명이다.

세계 최고 구단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간 뛰면서 선수 시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월드컵 때마다 해설가로서도 재능을 드러냈다.

2000년 일본 J리그의 교토 퍼플 상가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박지성은 2002년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 2005년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12년 킷즈 파크 레인저스, 2013년 다시 PSV 아인트호벤을 거쳐 약 14년을 뛰었다.

여러 팀을 옮겨 다니며 여러 우승을 경험한 박지성은 2002년 교토 퍼플 상가 시절 일왕배전 일본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프로생활 첫 우승을 경험했다. PSV 아인트호벤에서는 에레디비시 우승 2회와 준우승 1회를 맞았다.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우승 경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와 준우승 3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 UEFA 슈퍼컵 준우승 1회,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우승 1회 등을 경험하며 축구인생 최고 시절을 만끽했다.

2005년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박지성에 대해 "머리가 좋고

훈련이 잘 된 선수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축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화려한 프로 경력 외에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큰 공헌을 했다. 2000년 19세 나이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4경 출전에 공헌했다.

박지성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권유로 2002년 PSV 아인트호벤에 입단했다. 초반에는 부상으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극복하고 팀내 주요 선수로 안착했다.

특히 2004-2005년 시즌에 PSV 아인트호벤이 리그를 제패하는 데 공헌을 했다. 아울러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도 공적진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2005년 박지성을 영입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5경기에 출전해 27득점

을 기록했다. 그는 팀의 승리에 기여하며 2010~2011년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2012년 프리미어리그 하위 팀 킷즈 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다. 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25경기를 뛰던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부진으로 2013년 친정팀 PSV 아인트호벤으로 재입단했다. 코치진과 팬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23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다. 팀의 UEFA 유로파리그 출전 티켓을 따내며 선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4년 5월 은퇴한 그는 7월 27일 SBS 아나운서인 김민지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FIFA 마스터 코스 과정 수료로 시작으로 축구 행정가로서 길을 걷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축구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유소년본부장(비상근)을 맡았으며 지난해 초부터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에서어드바이

자로 활약 중이다.

최근 박지성이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2 KFA 풋볼 페스티벌'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재회했다.

관련 행사 중 '2002 월드컵 레전드 매치'에서 박지성을 비롯한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 월드컵 4강 주역들이 축구협회의 유소년 프로그램 '골든 에이지'에서 뛰는 14세 이하 대표 선수들과 8대8 경기를 펼쳤다.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과 레전드팀 벤치에 앉아 동료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했다.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2002년의 추억과 감동은 여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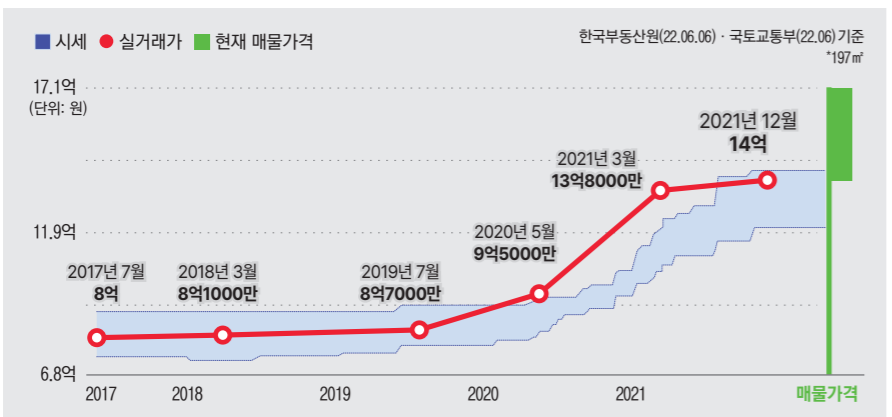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박지성 전북 현대모터스 어드바이저. 전북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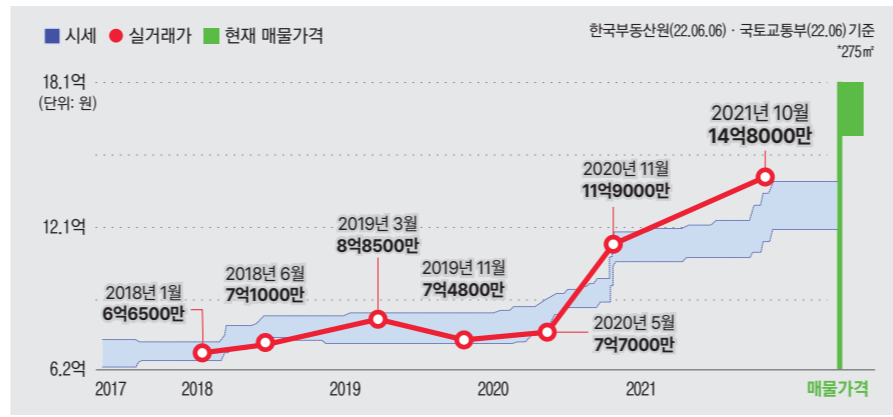
죽현마을 LG자이단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58



행원마을 동아슬레시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백현마을 한라비발디2단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22



박강수

한글프론트 공동대표이사



박강수

박강수 골프존 공동대표이사는 2002년 골프존에 합류해 시스템 애프터서비스(AS)를 맡았다. 이후 서비스 상무, 네트워크 상무, 골프존 상무, 골프존네트웍스 서비스운영본부장, GS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GDR아카데미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골프존은 창업자 김영찬 회장의 외아들인 김원일 전 골프존 대표이사가 2013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뒤 김희장도 2016년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대표는 핵심사업인 스크린골프의 실무 전반을 아는 인물로 2019년 3월 대표이사로서 선임돼 등기임원 자리에 올랐다. 이듬해 3



월 최덕형 대표와 공동 대표이사로서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과 국내 가맹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은 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맞았다.

정동윤

전북대학원 이사장



정동윤

정동윤 전 전북대학원 이사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주중,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와 배재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극동대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2012년 5월부터 전북대학원 이사를 맡았다. 한국보험공사 보험사업본부장, 대한해운공사 부사장,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 제1213대 국회의원, 민자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겸 정책조정실장,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등 산업계, 학계, 정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저서로는 '해운기업 수익성 분석론' '국제통상 보험론' '경영본



진용복

현)경기도의회 의원



진용복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은 충북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오름어린이집 원장,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경기도육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용인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보육정책 포럼 부회장, 사회복지공제회 이사, 한국크리스토퍼리더십 경기센터 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14년 6월 제9대 경기도의원, 2018년 7월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뒤 2020년 7월부터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재임



중이다. 진 부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경기도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의장의 역할은 '부끄러워 않는 의장, 부지런한 의장, 부드러운 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불법 투기거래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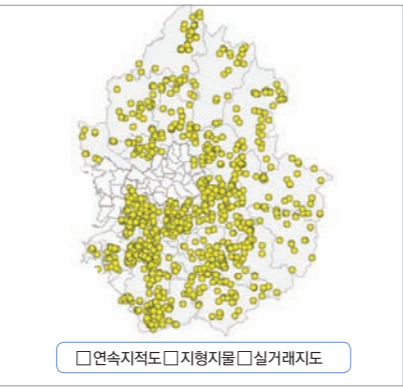
경기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이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에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경기도

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사군 등에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해 2억4800

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제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까지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 접수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학교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2024년 건립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이 학교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27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에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0억여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학교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로 근로자 수업을 반영해 카페, 편의점, 체육시설, 쉼터하우스 등 문화편의시설 등을 모두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짓는다.

특히 쉼터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본

안이나 주민 여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문화 향유 접근성이 취약했던 주민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농공단지는 학교면 죽정리에 있으며 1989년 준공된 이후 현재 26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함평 학교농공단지 전경.

함평군